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다(루카 22, 42~44)

“아버지,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.
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.” 그때에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그분의 기운을 북돋아 드렸다. 예수님께서 고뇌에 싸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,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.